



Jeongyi's Story

ICHM Student Success Story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CHM에서 석사 과정으로 학업 중인 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ICHM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호텔에서 일한 경력은 전무합니다.

대학생 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카페, 음식점, 베이커리, 편의점 그리고 학교 내 근로 장학생으로 일해본 적도 있고, 졸업 후 사무직으로 1년, 백화점 프론트 데스크에서 1년 정도 일한 경력은 있지만 호텔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크고 작은 경험을 쌓아오며 고객과 소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호텔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학력, 경력과는 무관했지만, 무모한 상상이 도전으로 이어져 현재 애들레이드 ICHM에 공부하고 있어요.

ICHM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학교 선택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한 두 가지는 학교 커리큘럼과 비용이었어요. 호텔산업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둘 모두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학교를 찾고 있었어요. ICHM 석사는 총 2년의 과정 중 1년 6개월의 학업 과정과 6개월의 인턴십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유급으로 현장 실습이 가능해요. 6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에는 캠퍼스가 위치한 애들레이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이 원하는 호텔에 지원하여 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죠. 이것이 제가 ICHM을 선택한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ICHM은 국제 학생에 대한 장학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입학 시에 장학금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매 학기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비 부담감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호주의 대도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 비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애들레이드는 타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고, 제가 시드니 캠퍼스가 아닌 애들레이드 캠퍼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Student Profile

STUDENT NAME

김정이

NATIONALITY

대한민국

COURSE

Master 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Year 2

“주변에 좋은 조력자들과 함께 적응하고 배워 나갈 수 있고, 호주의 광활한 자연을 만끽하면서 지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용감한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호주 유학 또는 ICHM 입학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보세요.”

학교의 위치와 시설은 어땠나요?

캠퍼스는 애들레이드 시티 중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등·하교가 굉장히 편해요. 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 도보로 다니기에 충분하지만 버스로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캠퍼스 주변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캠퍼스 주변에 카페도 많이 있어 공강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ICHM은 흔히 떠올리는 종합대학교의 높은 건물과 넓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업을 듣고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은 하나도 없어요. 넓은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건물 2층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공간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캠퍼스가 애들레이드 시티 그리고 차이나타운과 가까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도 좋아요. 캠퍼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수업 마치고 바로 도보로 출근이 가능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혹시 학업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나요?

학기 중 한국 레스토랑 두 곳에서 일했었습니다. 애들레이드 포커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는데, 구인구직 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거나 애들레이드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찾은 일자리는 기숙사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면서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조건의 일자리가 많지 않았지만, 외국인 손님이 주로 방문하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근무시간, 근무 기간, 스케줄 변동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시급 21-22불, 시급 28불을 받았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호주 문화를 배우고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시간표가 궁금해요.

1학기는 3개월 안에 4과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모두 있었어요. 실습을 가는 요일도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두 학업에 취중 되어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2학기는 2과목을 먼저 이수한 이후 일주일 정도의 짧은 방학을 보내고 다시 다른 새로운 2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1학기에 비하여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교 수업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수월했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3일에만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과 요일을 활용하여 과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Mon	Tue	Wed	Thu	Fri
9:00-10:30					
10:45-12:15					
13:00-14:30	MIHM201 Workforce Design and Strategy	MIHM201 Workforce Design and Strategy	MIHM201 Workforce Design and Strategy		
14:45-16:15	MIHM203 International Hotel Revenue Management	MIHM203 International Hotel Revenue Management	MIHM203 International Hotel Revenue Management		

석사 1년 학업 구성 및 공부한 과목들과 평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석사 과정은 1학기, 2학기에 4과목 그리고 인턴십 전 마지막 학기에는 5과목을 이수합니다. 1학기에 진행되는 4과목 중에 2 과목 (MIHM101과 MIHM102)은 현장 실습(무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실습의 경우,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 연회장에서 약 4회-5회 정도 진행됩니다. 교수님께서 실습 전, 실습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 호텔 식음료 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텔 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저에게 큰 도움을 준 과목 중 하나였어요. 호텔의 하우스키핑에 관한 실습도 있었는데, 하우스키퍼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직접 일해보며 직원분들과 소통하며 업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MIHM103)도 있어요. 1학기 동안 배운 내용(회계)인데, 교수님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미리 잘 설명해 주셨고,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연습과 복습을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2학년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론 수업과 개인 리포트(에세이) 과제로 구성되었고, 역시 교수님께서 과제 수행 방향성을 잘 알려주셨어요. 조별 과제의 경우 랜덤으로 지정된 3명~4명의 조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제 선정, 자료 조사, 발표를 조원들과 함께 준비해서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호텔 디자인에 관해 배우는 과목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 (MIHM204A)인데, 과제는 혼자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호텔 디자인과 아트에 관한 지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의 과제는 일반적으로 2,000자~3,000자의 에세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조원들과 함께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심화 학습이 가능하고, 호텔 업계의 트렌드와 문화를 더 잘 알게 됩니다.

Adelaide 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애들레이드 시티 중심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에서 도보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2인 셰어 룸 형태로 기숙사비는 주당320 AUD이며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약 100~150 AUD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학교와 가깝고 편리성과 안전을 고려해 시내 중심에 위치한 기숙사를 선택했는데,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고, 외곽에도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기숙사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함은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놀거리가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웬만한 것은 다 있어요. 석사 과정의 경우 6개월의 인턴십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1년 6개월의 학업 기간 동안은 애들레이드라는 도시를 한번 경험해보고 거주해보면서 호주라는 나라의 색다른 매력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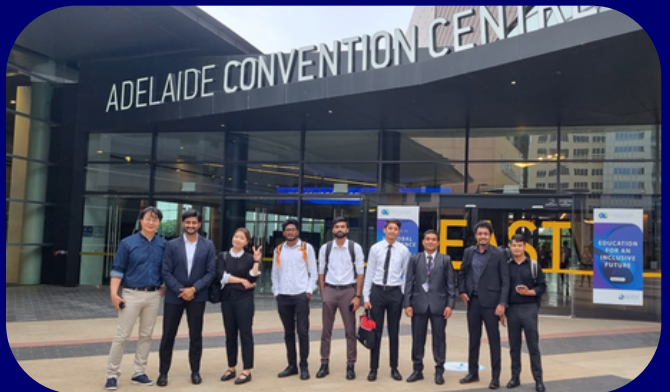
ICHM 석사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 ICHM이 다른 학교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유니폼을 착용한다는 것이예요. 석사 과정은 학교에서 규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지만 정장차림의 비즈니스 복장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호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 실습 과정이 포함 되어있다는 점과 졸업 전 6개월의 인턴십 과정은 이론 공부를 비롯하여 실무를 확실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점도 ICHM 석사 과정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사 과정의 학생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호텔 공부를 했거나 호텔에서 근무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석사 입학 전으로 돌아가도 ICHM을 선택할 만큼 후회가 없어요.

호텔리어가 되고 싶거나 관련 분야로 석사 과정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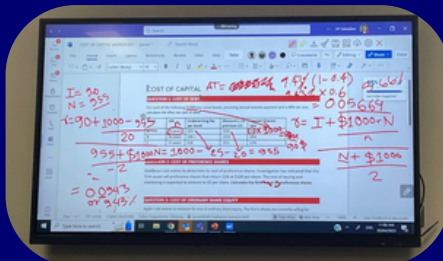
한국에서 타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경력이 있었지만, 호텔업계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경영 석사과정을 도전하기까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들레이드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착하고 친절 한 친구들 덕분에 행복한 유학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호텔리어의 꿈을 간직하셨던 분들께겐 더욱 ICHM 석사 과정이 목표한 커리어에 꼭 맞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결정하기까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좋은 조력자들과 함께 적응하고 배워 나갈 수 있고, 호주의 광활한 자연을 만끽하면서 지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용감한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호주 유학 또는 ICHM 입학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보세요.



MIHM101(International Hotel Food and Beverage) 실습 전 교수님과 함께 컨벤션 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습이 진행되는지 담당자님께 짧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1학기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학교에서 받은 상입니다.



MIHM103 (Hospitality Management Accounting) 수업 중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님께서 매번 수업에 필요한 수업 자료들을 수업이 시작되기 전 올려 주시는데 스스로 예습하고 간 학습자료를 수업 시간에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예습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ICHM 명찰을 하고, 학교에서 제공된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장소는 제가 지내고 있는 기숙사예요. 사진은 ICHM에서 학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두려움 반 설렘 반이 가득하던 그때가 가끔은 그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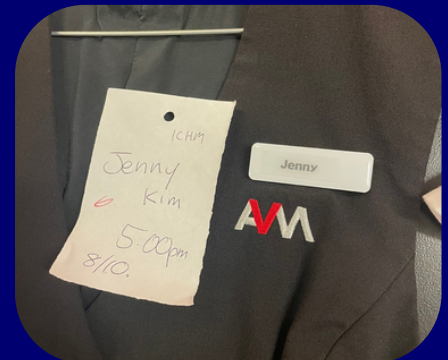


MIHM101(International Hotel Food and Beverage) 수업 시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보고, 와인을 시음해보면서 호텔산업의 식음료 부분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MIHM204A(Art and Design in Hospitality Environments) 수업 중 애들레이드 박물관과 도서관을 견학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MIHM101(International Hotel Food and Beverage) 실습 - 실제로 컨벤션 홀 외관과 실습 중 찍은 연회장 내부 사진 모습입니다.

“식사 과정의 학생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호텔 공부를 했거나 호텔에서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사 입학 전으로 돌아가도 ICHM을 선택할 만큼 후회가 없어요.”

JEONGYI IS SHAPING HER FUTURE.

To shape yours, enrol with ICHM.

ichm.edu.au

ICHM is a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CRICOS Provider No. 02914G
TEQSA Provider ID PRV12099